

Rio+20 및 브라질 방문 연수 보고서

이복남 _ 순천시의회 의원(문화경제위원회)

2012

6.18~

6.27



순천시의회

Rio+20 우리공동의 미래 및 브라질 방문 연수 보고서

차 례

I 개요 03

연수개요	03
세부일정	06

II 방문지 및 연수내용 09

RIO+20	09
꾸리찌바	19
이과수	25
기타 방문지	25

III 평가 및 시사점 09

평가 및 시사점	27
참가자 현황	32

I. 개요

1. 연수 개요

1) 목적

- 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참관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 Rio+20 회의 참가를 통한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추진 동향과 이슈를 폭넓게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사례 습득을 통한 지역단위 및 의회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운동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2) 배경

- UN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UNCED(유엔환경과개발에 관한회의) 20주년을 Rio+20세계회의(UNCSD)를 개최, 이에 맞춰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서 전국 참가단을 구성하여 참관 및 벤치마킹 계획으로 연수를 준비함.

3) 기간

- 2012년 6월 18일(월) ~ 6월 27일(수), 9박 10일(체류기간 7일)

4) 연수장소(도시별)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꾸리찌바, 이파수

5) 연수 지역 정보

○ 브라질



- 면적 8,514,877 km², 인구 186,757천명
- 남아메리카에 있는 연방공화국으로, 남아메리카 최대의 국토를 지닌 나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최대의 국가이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로, 아메리카 대륙 지역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며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국가다. 첫 수도는 사우바도르(Salvador), 그리고 두 번째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로(Rio de Janeiro)였으나, 해안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내륙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1960년부터 새로 건설된 브라질리아(Brasilia)가 새로운 수도가 되었다. 삼바와 카니발의 본고장이기도 하며, 축구강국이기도 하다. 브라질의 명목 GDP 순위는 세계 8위이며, 구매력 기준 GDP는 세계 7위이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면적 : 1,260km²
- 인구 : 약 800백만명
- 약칭으로 리우라고도 한다. 대도시로 1763~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로 세계 3대 미향(美港)의 하나이다. 동쪽은 대서양연안의 구아나바라만(灣)에 면하고, 서쪽은 해발고도 700m가 넘는 가파른 산지가 시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시가는 코파카바나·이파네마 등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좁고 길게 뻗어 있으며, 항구 입구에는 팡데아수카르라고 불리는 높이 약 400m의 종 모양 기암이 있어, 항구의 표지 구실을 한다. 또 시가지 바로 뒤에 있는 높이 약 700m의 코르코바도 암봉(岩峰) 꼭대기에는 리우의 상징인 그리스도상(像)이 세워져 있다.



○ 브라질 꾸리찌바



브라질 파라나 주의 주도(州都)인 꾸리치바시는 리우 데 자네이루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평균 고도가 약 900m인 아열대 지방에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총면적이 432km²로 우리나라의 대전시 면적보다는 약 100km²가 작지만, 인구는 160만으로 대전보다 약간 큰 대도시이다.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시사주간지 ‘타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 월드리포트’), ‘희망의 도시’(‘성장의 한계’ 저자 도넬라 메도우즈)로 알려져있다. 이밖에도 꾸리치바는 로마클럽이 선정한 세계 12개 모범도시 가운데 하나로 유엔 인간정주회의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도시발전 사례로 주목을 받았고, UNEP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국제기구와 연구소 등으로부터 영예로운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곳이다.

○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IPPUC)

‘꾸리찌바의 두뇌’라 불리는 꾸리찌바시를 재설계한 연구소.

연구소가 기획한 새로운 시스템으로는 원통형 버스정류장과 버스시스템, 3중도로 시스템을 개발함(270명 정원의 급행버스, 2~3km마다 정차하는 급행버스, 버스터미널과 관계없이 일반지역을 순환하는 일반버스,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특수버스, 보건소와 병원을 순회하는 특수버스, 미니버스, 관광객용 버스 등) 시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차 없는 거리 꽃길 조성, 습지공원 바리기공원, 버려진 채석장을 재활용한 환경개방대학과 오페라하우스, 버려진 창고와 철도역사에 입점한 백화점 등)

5) 참가단 현황

- 지방의제21 참가단 44명
 - － 지방의제21 위원 및 실무자, 전문가,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
 - － 순천 : 이복남 순천시의회 의원(문화경제위원회 간사)

6) 연수준비

- 2011.10. 제13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한국 지방의제21, Rio+20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2012. 2. 최종운영안 확정(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승인)
- 2012. 4. 전국협의회 주최 참가일정 확정 및 참가단 조직 구성
- 2012. 5. 참가단 리우 현지 등록
전체참가단 1차 준비 회의
정책포럼 “Rio+20과 한국지방의제21”
- 2012. 6. 연수참가자 사전모임 1회 진행



2. 세부일정

Rio+20 및 브라질 방문일정	2012 6.18~ 6.27
리우데자네이로/꾸리찌바 외	

일자	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정	기타
6/18(월) ~6/19(화) 6/19(화) 6/20(수)	09:00	인천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집결	집결
	12:30 ~17:00	인천	프랑크푸르트	인천공항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유	출발
	22:00 ~5:30	프랑크푸르트	리우	프랑크푸르트 출발 리우데자네이로 도착	이동
	09:00 ~12:00	리우데자네이로		리우파빌리온 -리우+20 참가자 등록 및 참관	회의
	14:00 ~16:00			리우파빌리온 -참관 및 사이드이벤트 둘러보기	
	20:00 ~22:00			전국협의회 및 전국 참가단 교류	교류
	숙박- Cantagalo역 부근 Youth Hostel				
	9:00 ~12:00	리우데자네이로		역사문화 도시체험 -Pao de Acucar(Sugarloaf)탐방	답사
	13:30 ~15:00			리우+20 People's Forum -Flamengo Park	회의
	16:30 ~18:00			역사문화 도시체험 -Corcovad 예수동산 탐방	답사
	19:30 ~20:00			공식일정 안내	회의
	숙박-Cantagalo역 부근 Youth Hostel				

6/21(목)	9:00 ~10:30	리우데자네이로		리우파빌리온 -글로벌타운홀 세션 설명 및 이클레이 결과 브리핑	이동
	10:30 ~11:00			리우파빌리온 -염태영 수원시장 인사 및 브리핑 -순천시&의회 홍보자료 배포	참여활동
	11:00 ~13:00			글로벌타운홀 세션 참관 -Cities leadership day	회의
	13:00 ~14:20			한국 민간위 참석대표 간담회 및 염태영 수원시장과 오찬	회의 및 교류
	15:00 ~16:00			글로벌타운홀 세션 참관 -New global governance towards t he urban world 2030	회의
	16:00 ~17:00			글로벌타운홀 세션 참관 -반기문UN사무총장 연설	회의
	17:00 ~18:30			글로벌타운홀 전시관 참관 -국가, 기업홍보관 및 부대행사	참여활동
	21:00 ~23:00			Copacabana 해변 -전체참가단 교류와 모임	교류
	숙박-Cantagalo역 부근 Youth Hostel				
6/22(금)	8:45 ~11:00	리우	꾸리찌바	갈레앙공항 출발, 꾸리찌바공항 도착	이동
	14:00 ~16:00	꾸리찌바		꾸리찌바 시의회 방문 -시의회 면담 및 시의회 둘러보기 -시의회 심포지엄 참관	방문
	16:00 ~17:50			도시계획연구소 IPPUC 방문	방문
	19:00 ~20:00			꾸리찌바 한인회 교류 및 도서전달식	교류
	20:00 ~21:30			환경NGO ‘SPVS’(산림보호 및 동물 보호단체) 간담회	교류
	숙박-Victoria Villa Hotel				

6/23(토)	8:00 ~8:30	꾸리찌바		리우+20 참여 세션별 브리핑 - 해양, 생물종다양성, 도시계획	회의
	8:30 ~9:30			오페라하우스 방문 Tangua공원(채석장부지) 방문	답사
	10:00 ~11:00			꾸리찌바 교통환경 체험 -버스탑승, 중앙역편의시설 등	답사
	14:20 ~13:50	꾸리찌바	이과수	꾸리찌바공항 출발, 이과수공항 도착	이동
	16:00 ~17:00	이과수		세계최대 수력발전소 ITAIPU댐 방문	방문
	숙박-Golden Tulip Hotel				
6/24(일)	9:00 ~10:00	이과수	파라과이	파라과이CIUDAD DEL ESTE 둘러보기 (브라질 접경지역)	답사
	11:00 ~13:00	이과수		이과수폭포 국립공원(브라질측) 탐방	답사
	14:30 ~15:30			사파리 정글 투어	체험
	15:30 ~16:30			쾌속보트 폭포낙차 투어	체험
	21:00 ~23:00			참가단 전체 교류모임	교류
	숙박-Golden Tulip Hotel				
6/25(월) ~6/26(화)	8:00 ~9:00	이과수	아르헨티나	이과수폭포 아르헨티나 측 이동	이동
	9:00 ~12:00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악마의 목구멍 탐방	답사
	13:00 ~14:00	아르헨티나	이과수	이과수공항으로 이동	이동
	16:45 ~19:50	이과수	리우	이과수공항 출발 리우데자네이로공항 도착	
	21:18 ~2:20	리우	프랑크푸르트	리우데자네이로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유	
6/26(화) ~27(수)	19:20 ~12:20	프랑크푸르트	인천	프랑크푸르트 출발, 인천 도착	도착

II. 주요 방문지 및 내용

1. RIO+20 참여

□ 회의개요

○ 명칭 : 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일시 : 2012년 6월 20일~22일

○ 장소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참석 : 약 5만여명 참여

– 190여개 UN회원국 공식참가

– 참가 정상 및 정부대표, 유엔 국제기구 관련참여자, 환경사회 관련 NGO관계자 및 학계 참여자 등

○ 주요내용

– 1992년 리우선언 20주년 Rio+20

–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선언문 채택



○ 회의의 주요 주제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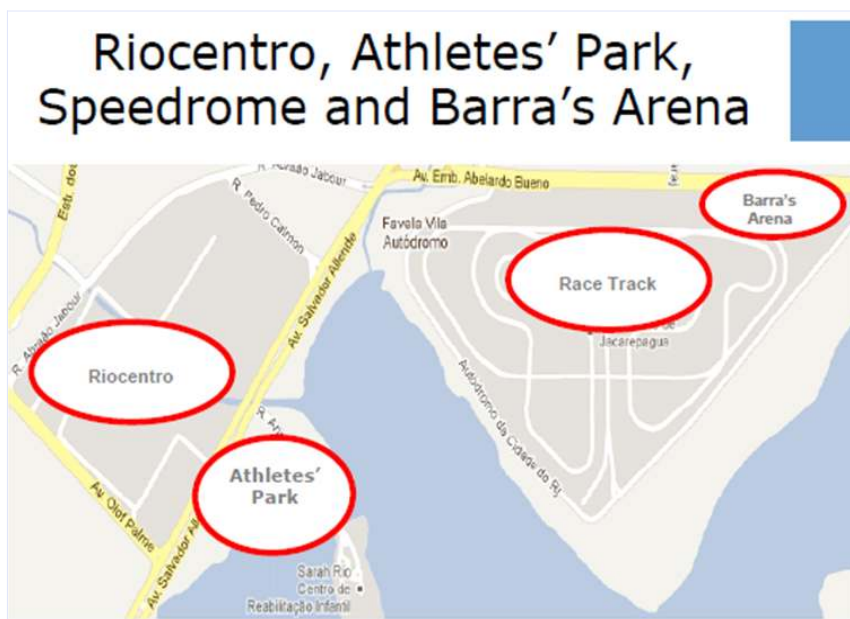
- | | |
|---|------------------|
| ■ 빈곤퇴치 | ■ 아프리카 |
| ■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한 농업 | ■ 지역적 노력 |
| ■ 물과 위생시설 | ■ 재난위기의 개선 |
| ■ 에너지 | ■ 기후변화 |
| ■ 지속가능한 관광 | ■ 산림 |
| ■ 지속가능한 운송 | ■ 생물다양성 |
| ■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 ■ 사막화, 토지황폐화와 가뭄 |
| ■ 건강과 인구 | ■ 산 |
| ■ 모두를 위한 전면적이고 생산적인 취업과 좋은 일자리, 사회보호에 대한 촉진 | ■ 화학물질 및 폐기물 |
| ■ 해양과 바다 |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 ■ 군소도서 국가의 발전 | ■ 광산업 |
| ■ 최빈국(最貧國) | ■ 교육 |
| ■ 내륙 개발도상국 | ■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

○ 주요행사

- 본회의장 Riocentro : 각국 정상들의 연설 등
- 사이드 이벤트 : 국가, 국제NGO, 기구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발표와 토론
- 민중 정상회의(People Summit) : NGO들의 전시와 토론발표, 공동행동
- 전시관 : 국가와 기업들의 홍보관(한국은 녹색성장 홍보관 운영)

○ 리우데자네이로 회의장

- 주요 회의장으로 1)Barra da Tijuca 지역과 2)코파카바나 해변과 도심 지역
- Barra da Tijuca 지역의 회의장



리오센트로 컨벤션센터

- 메인 공식행사장
- 6개 파빌리온
- 참가자 등록창구 등

공식행사장 인근, 주요
부대행사장이 배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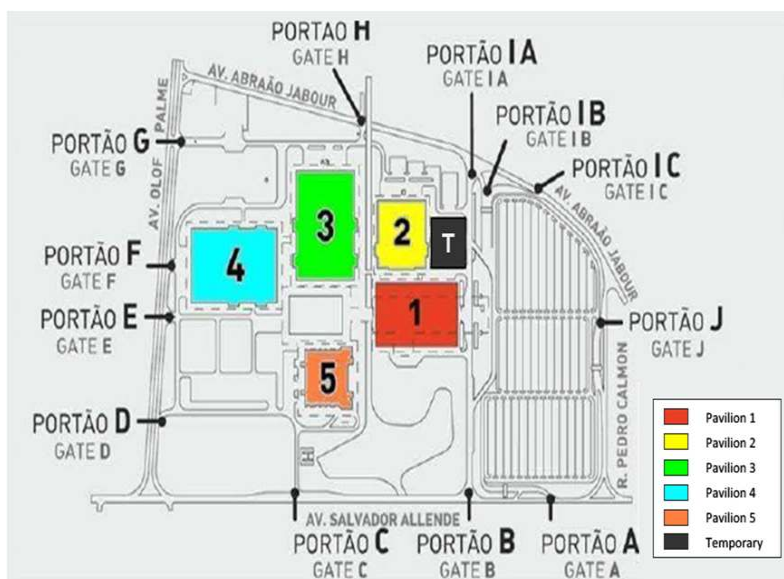
Athelets's Park

- 글로벌타운홀 등 UN
공식 사이드이벤트 행
사장

Barra's Arena

Race Track 등

- 리오센트로 행사장



- ▷ 파빌리온1 : 행정지원시설,
사전등록자-GroundPass발급
- ▷ 파빌리온2 : 식당, 카페
- ▷ 파빌리온3,4 : 부대행사
P3. 매일아침 8:30-9:30
행사관련 브리핑세션
- ▷ 파빌리온5 : 메인행사장
- ▷ 파빌리온T : Major Group
부대행사장

□ 주요 활동내용

1) UNCSD 세션 및 부대행사 참여

○ 일시 : 2012년 6월 19일(화) 09:00~16:00

○ 장소 : 리오센트로 행사장

○ 내용 : 사이드이벤트 및 세션 자율 참관

– 메인 행사장인 Riocentro에서 사전참석자 등록

– 각 행사장별 주요 프로그램 및 회의내용, 참가단 공유사항 브리핑

– 담당 팀별로 맡은 주제에 따라 각종 세션 참관 활동 진행

: The Future Women Want, United 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Forum on Forest 등

– 각 파빌리온에서 진행 중인 부대행사 참여

: 메이저 그룹 부대행사, Local Agenda 21 전시, 양성평등 및 회의 주제 관련 사이드 이벤트 등

○ 관련사진



사전 참석자 등록



회의장 입구



회의장 안 브리핑



세션 참가자들



세션 참관



세션 참관



The Future Women Want 세션 참관



세션 및 부대행사 전시



메이저그룹 부대행사장



메이저그룹 부대행사장



양성평등 관련 활동 스케치



양성평등 관련 여성단체 이벤트

2) People's Summit

○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 13:30~15:00

○ 장소 : 플라멩고 공원

○ 내용 : 공원 일원에서 진행된 민간인 회의 및 기타 부대행사

- 민간단체 및 시민 참여의 다양한 문화와 전시 행사 등이 진행
- 악세사리, 의류 등 다양한 인디언 물품을 사고파는 벼룩시장 운영
-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체험거리 운영

○ 관련사진



People's Summit



People's Summit



People's Summit



문화행사



전시



벼룩시장 및 체험

3) 홍보자료 배포 및 교류활동

○ 일시 : 2012년 6월 21일(목) 10:30~14:00

○ 내용 : 국내활동 홍보자료 배포 및 참가자 활동

- 참가단 공식일정 안내 및 이클레이 결과 브리핑
- 의제21 활동 및 각 단체별 국내활동 소개, 홍보자료 배포
 - 순천시 및 순천시의회 소개 영문자료, ECO-GEO 정원박람회 자료 등
- 한국 민간위 참석대표 및 염태영 수원시장 오찬

○ 관련사진



참가단 브리핑



한국 민간위&수원시 교류회



순천시&순천시의회 소개 및 홍보자료 배포



우리공동의 미래 포스트잇 참여활동



세션 이동

4) 도시 리더십의 날

○ 일시 : 2012년 6월 21일(목) 10:00~17:00

○ 장소 : 글로벌타운홀

○ 주요내용 : 이클레이 총회에서 채택된 메시지를 리우+20에서 발표

- Cities leadership for the urban world 2030
- Sustainability leadership for the urban world 2030

■ 사 회 : Konrad Otto-Zimmermann(이클레이 사무총장)

■ 발표1 : Mario Araujo Lacerda(브라질 벨로호리존치 시장)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UN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및 역할 명시가 필요함.
- 녹색도시경제는 브라질의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주제이며 지역시민의 참여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지방정부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자원 및 권한은 지방정부로 주어져야 함.

■ 발표2 : Dieter Salomon(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장)

- 녹색당 출신의 시장으로 독일의 지방정부의 참여와 기대하는 바를 연설함.
- UN의 문서와 정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며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함.
- 국가의 정책이 부재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은 가능하다는 희망을 역설함.

■ 발표3 : Agnes Ntlangula(남아공 Sol plaatje 부시장)

- 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이 더 심각해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온실가스 주범인 국가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며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안보와 빈곤문제, 에너지 자원 등을 정당한 지불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함.

■ 발표4 : Lai Jean Quan(미국 오클랜드 시장)

-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사실, 지방정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함.

■ 발표5 : David Cadman(이클레이 지방정부 회장)

- UN에서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측정가능한 시스템을 측정하지 못함.
- 2년 전 멕시코협약에서 지방정부는 국가와 상관없이 지방정부 간의 검증, 계량이 가능한 온실가스 측정 내용 협약을 진행했음.
- 교통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임.

○ 관련사진



Cities leadership for the urban world2030



Cities leadership for the urban world2030



세션 발표 전경



세션 참관

○ 연설1 : 반기문(UN사무총장)

-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은 세계의 도시와 지역-마을-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
- 지속가능한 마을과 도시 만들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를 여러분이 만들고 있음.

"Local is global and global is local"



반기문 UN사무총장 연설



Sustainability leadership for the urban world 2030

5) 행사장 및 전시관 운영

○ 회의장 특징

– 종이없는 회의 운영

: 인포메이션 센터 및 각 세션장에 홍보자료나 원고 등이 거의 놓여있지 않고 영상시스템을 통해 검색

– 박스를 이용한 쓰레기통, 남은 곡물을 이용한 eco-pack 등을 이용

– 각 파빌리온 사이에 그들과 벤치가 있는 공원이 있어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나 모임 등이 이뤄지고 있었음.

○ 전시관 특징

– 각 나라와 기업이 참여한 전시관은 다양한 형태의 모양과 내용으로 구성됨.

– 특히 전시형태에서 탈피해 소그룹 토론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음.

○ 회의장과 전시관, 문화행사 등 행사장이 구분돼 있어 이동시간이 많이걸림

○ 관련사진



옥수수 등 버려진 곡물을 이용해 만든 재활용 컵



종이없는 회의장 운영



회의장 밖 야외 공원



파빌리온2- 식당



각 세션별 소개 전광판



글로벌타운홀 행사장 입구



국가 및 기업 전시관



국가 및 기업 전시관



환경부 녹색성장관 부스



글로벌타운홀 세션장

○ 사이드이벤트 관련사진



사이드이벤트



사이드이벤트



사이드이벤트



사이드이벤트

2. 꾸리찌바

1) 꾸리찌바 시의회

○ 일시 : 2012년 6월 22일(금) 14:00~16:00

○ 장소 : 꾸리찌바 시의회

○ 주요내용 : 시의장 면담팀과 시의회 참관팀으로 나누어 진행

– 시의장 면담 : 지역별 대표 및 행정, 의회 관련자 간 간담회 진행

– 시의회 참관 : 시의회 직원 브리핑 및 녹색당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도시와 우리의 도전” 참관

○ 간담회

– 참석 : 약 20여명

• 꾸리찌바 시의회(3명) : 시의장 존루이스(Joao Luiz Cordeiro), 사회민주당 부의장(진보공화당), 사무국장(민주사회당,여성)

• 참가단(20여명) : 이복남(순천시의회), 김재연(경기도의회) 의원 외 참가단

- 내용 : 시의장 인사 및 순천,경기도 의회 소개,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
 - 꾸리찌바 시의회는 총 38명으로 여성의원은 6명이며, 꾸리찌바 시의회는 늘 시민을 위해 오픈되어 있음.
 - 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회개발, 환경적인 부분 등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도시계획 추진이후에 꾸리찌바 중심부의 1인당 녹지율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해결해야할 현안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의 치안문제임.
 - 쓰레기 수거는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2,500ton 재활용품 발생하며 85% 정도 분리수거가 되고 있음.

○ 관련사진



꾸리찌바 시의회



시의장과 간담회



시의장 및 여성 시의원과 함께



참가자 전체



시의회 브리핑



심포지엄 참관

2) 도시계획연구소 (IPPUC)

○ 일시 : 2012년 6월 22일(금) 16:00~17:50

○ 장소 : 연구소 내

○ 주요내용 : 꾸리찌바를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로 계획한 도시계획연구소 사업 소개
- 1965년 설립, 현재 150여명의 도시설계사와 건축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꾸리찌바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도시계획의 산실로 자리매김 함.

- 대중교통에 우선순위를 둔 구획 및 통합 교통네트워크 구축, 효율적 버스시스템 및 버스터미널과 연결되는 시민편의 시설 등이 대표적임.

-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분리되어있어 전문적인 도시계획 설계가 가능함.

- 토지이용에서 공공개념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증축 및 개발 제한

○ 관련사진



IPPUC



연구소 내부 모습



담당자 브리핑



담당자 브리핑

3) 꾸리찌바 한인회 도서전달식 및 환경NGO 'SPVS' 간담회

○ 일시 : 2012년 6월 22일(금) 19:00~21:30

○ 장소 : 한인 식당

○ 주요내용 : 꾸리찌바 한인회와 도서전달식 및 환경NGO 간담회

- 민주화운동본부에서 기증받은 한국 소개책자 30여권과 참가단 개인별로 준비한 책1~2권을 취합하여 총 100여권을 꾸리찌바한인회에 기증
- 한인회를 통해서 꾸리찌바 도서관에 한국도서 비치하도록 함.
- 산림보호와 동물보호 운동을 진행하는 브라질의 환경 NGO단체 'SPVS' 대표 및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교류

○ 관련사진



한인회 환영인사



대표단 도서전달식



SPVS 소개



SPVS 활동가들과 함께

4) Tangua 공원 및 오페라하우스

○ 일시 : 2012년 6월 23일(토) 08:30~09:30

○ 주요내용 : 채석장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한 사례 답사 및 오페라하우스 방문

- Tangua 공원 : 석산 개발이 끝난 채석장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 1996년에 개장하여 녹지대를 넓힌 사례임.
- 환경개방대학 : 공원 옆에 자리한 환경개방대학은 통나무로 제작된 폐전주를 재활용

해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만들었음.

－ opera de aram(오페라하우스) : 파이프와 철사로 만들어진 오페라 하우스, opera de arame의 arame는 포르투갈어로 철재를 뜻함.

○ 관련사진



Tangua 공원



opera de arame

5) 꾸리찌바 교통환경 체험

○ 일시 : 2012년 6월 23일(토) 10:00~11:00

○ 장소 : 시내 일원

○ 주요내용 : 굴절버스 탑승 및 중앙터미널 답사

－ 1974년 기존 버스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본 교통축과 터미널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립

－ 중앙전용차로의 일반차량 진입 차단을 실시하여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구현

－ 원통형 정류장의 선 지불 요금 시스템으로 승차시간이 효율적으로 절약됨.

－ 정류장과 버스 출입구 높이가 같아 자전거,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함.

－ 색깔별로 노선을 구분하여 대도로, 순환선, 마을버스형태, 시티투어, 병원, 학교 등의

다양한 노선으로의 환승이 가능함.

- 한 번의 요금으로 제한 없이 환승이 가능한 단일요금제 시행
- 정류장에 직원을 배치하여 신뢰도 상승 및 고용창출 효과
- 주요 환승 터미널은 행정기관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이 있음.

○ 관련사진



원통형 정류장



굴절버스



정류장 내 상주 직원



중앙역터미널



원통형 정류장

3. 이과수

1) ITAIPU 댐

○ 일시 : 2012년 6월 23일(토) 14:20~13:50

○ 주요내용 : 세계최대 수력발전소 ITAIPU 댐 방문

-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협상을 통해 파라나강에 1984년 준공한 세계 최대의 댐
- 파라과이 유역의 강을 막아 댐을 건설하고 브라질 유역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저장한 물로 발전을 하는 시스템
- 파라과이는 일부의 영토를 제공, 브라질은 대부분 자본 감당, 발전량은 양국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파라과이가 45%를 브라질에 재수출하여 결과적으로 브라질이 90%이상을 사용하고 있음.
- 시간당 발전량 1400만Kw로 천문학적 규모이나 댐건설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훼손된 산림 및 생태계 파괴 부분 고려도 필요.

○ 관련사진



가이드 설명



이따이푸댐

4. 기타방문지

1) 팡 데 아수카르(Sugarloaf)

○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 10:00~12:00

○ 내용

- 제빵용 설탕덩어리처럼 생겼다하여 지어진 이름
- 약 6억 년 전 용암 상태로 관입된 거대한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풍화작용으로 박리 현상이 일어나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면서 지금처럼 완만한 화강암 산이 됨.

2) Corcovado 언덕 예수상

○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 16:30~18:00

○ 내용

-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지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동상
- 높이 38m, 양팔길이 28m, 무게 1,145톤으로 리우데자네이로의 전경이 펼쳐짐.

3) 이과수폭포

○ 일시 : 2012년 6월 24일(일) 11:00~16:00(브라질 측)

2012년 6월 25일(월) 9:00~12:00(아르헨티나 측)

○ 내용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가 만나는 접경지대에 자리하고 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폭포
- 4km의 폭, 평균 낙차 높이가 80m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이며 많은 양의 물이 낙하하고 있음.

○ 관련사진



예수상



예수상 앞 전경



이과수 폭포



팡 데 아수카르 앞

Ⅲ. 평가 및 시사점

1. Rio+20 결과 요약



RIO+2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Stakeholder Forum

- 국가대표, 국가간 합의
-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 OECD, 유럽, 미주 /
- G77- 중국 / 아프리카, 중남미

- 9개 주요 그룹
- 여성, 청소년, NGO, 농민, 원주민, 기업계, 노동자, 과학기술, **지방정부**

- 지역별 회의 : 유럽, 미주, 아태, 아프리카 등
- 영역별, 그룹별 (조직 파트너 지정)

- 결과 The Future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미래)

 Rio+20 목적과 주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인지 재확인 •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와 제도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년 계획 채택	 Rio+20 주제-1 •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맥락에서의 녹색경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6f2ff;">쟁점</th><th style="background-color: #f2e6e6;">결과</th></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 - 개념 모호 - SD 대체? - 새로운 방안? - 보호무역 장벽 ? - 개발지원 조건 ? </td><td style="background-color: #f2e6e6;">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 - 모든 논점 수용 - 향후 로드맵 채택키로. </td></tr> </tbody> </table>	쟁점	결과	- 개념 모호 - SD 대체? - 새로운 방안? - 보호무역 장벽 ? - 개발지원 조건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 - 모든 논점 수용 - 향후 로드맵 채택키로.				
쟁점	결과								
- 개념 모호 - SD 대체? - 새로운 방안? - 보호무역 장벽 ? - 개발지원 조건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 - 모든 논점 수용 - 향후 로드맵 채택키로.								
 Rio+20 주제-2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과 기구 (IFS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6f2ff;">쟁점</th><th style="background-color: #f2e6e6;">결과</th></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 - CSD에서 SDC로 - UNEP 강화 - UNECOSOC 강화 - 고위급 정치포럼 </td><td style="background-color: #f2e6e6;"> - 고위급 정치포럼 - UNEP 강화 - UNECOSOC 강화 - 다층적 거버넌스 </td></tr> </tbody> </table>	쟁점	결과	- CSD에서 SDC로 - UNEP 강화 - UNECOSOC 강화 - 고위급 정치포럼	- 고위급 정치포럼 - UNEP 강화 - UNECOSOC 강화 - 다층적 거버넌스	 Rio+20 주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6f2ff;">쟁점</th><th style="background-color: #f2e6e6;">결과</th></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 - 대체로 동의 - 실행 추진 담당에 대한 갈등 </td><td style="background-color: #f2e6e6;"> - UN 총회 승인 목표와 지표 설정 - 차기 총회 직전 실무 그룹 출범 </td></tr> </tbody> </table>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년 계획 (채택)	쟁점	결과	- 대체로 동의 - 실행 추진 담당에 대한 갈등	- UN 총회 승인 목표와 지표 설정 - 차기 총회 직전 실무 그룹 출범
쟁점	결과								
- CSD에서 SDC로 - UNEP 강화 - UNECOSOC 강화 - 고위급 정치포럼	- 고위급 정치포럼 - UNEP 강화 - UNECOSOC 강화 - 다층적 거버넌스								
쟁점	결과								
- 대체로 동의 - 실행 추진 담당에 대한 갈등	- UN 총회 승인 목표와 지표 설정 - 차기 총회 직전 실무 그룹 출범								

□ Rio+20 주제와 결과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 재확인

– 쟁점은 피하고 난제는 미루는 등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변화의 필요성과 계기 마련에 의미 있음.

– 구체적 내용은 다음 총회 전까지 워킹그룹 결성하여 진행키로, 필요성 인정

○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 개념 모호, 보호무역 장벽 및 개발지원 조건의 모호함이 있으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논점 수용, 로드맵 채택 못함.

○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와 제도

– 고위급 정치포럼, UNEP(유엔 환경프로그램)전문기구화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강화에 대한 합의 및 권고안 마련

– UN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강화, 다층적 거버넌스

○ 지속가능발전목표

– 실행추진 담당에 대한 갈등이 존재

– UN총회 승인 목표와 지표 설정(차기 총회 직전에 실무그룹 출범)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년 계획 채택

□ 리우+20의 평가와 시사점

○ 1987년 유엔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 발표,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제시

= 환경적 지속가능성

○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리우+20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수단으로 녹색경제를 제시

○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년, 이번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체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론은 유엔 사무총장(반기문)과 국제 NGO 사무총장(쿠미 나이두 그린피스)의 평가가 상반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그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를 만드는 데는 미흡한 회의 결과였다는 평가

■ 지구적 생태, 경제위기의 다급함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제시는 못함. 결과문서에 재확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듯이 1992년 리우선언과 2002년 요하네스버그 이행선언의 수준에서 진전되지 못함.

1) 결과문서를 통해 본 Rio+20, 성과는?

①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의지 재확인

- '92 리우 회의 및 '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등 과거 공약 재확인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각국이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옵션으로 녹색경제를 인정

③ 고위급 정치포럼 신설 및 UNEP의 강화격상

- 고위급 정치포럼 신설 및 UNEP의 강화, 격상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채택

- UNEP의 전문기구화와 관련, 국가간 이견 존재

(EU, 우리나라, 아프리카 vs 미국, 일본 및 非 아프리카 개도국)

④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및 이행계획

- 제68회 유엔총회('13.9)시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SDGs 설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자원조달체제 설립을 목표로 하는 유엔 총회 하의 정부간 위원회 설립에 합의

⑤ 지속가능소비·생산 10년 기본계획(10YFP SCP)의 채택

- 지속가능소비·생산 10년 기본계획(10-Year Framework Programm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 및 이행을 위한 기구 지명 등 후속 노력에 합의

2) 회의장 밖에서의 Rio+20, 성과는?

① 500여개의 부대행사 :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지 공유

- Rio+20 기간동안 약 500여개의 공식 부대행사가 개최됨
-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각 공유
- 부대행사를 계기로 선진-개도국,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이니셔티브 구축
 - 카자흐스탄, 독일, 러시아, 한국의 Green Bridge Initiative
 - UNEP-환경부-ILO의 Partnership of Action for Green Economy 등

② 700여개의 자발적 공약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자발적 공약은 Rio+20 결과문서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building blocks라는 점에 의의

3) Rio+20, 의의와 한계

① 지속가능발전 여정의 출발점으로서 Rio+20

- 녹색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한 유엔 최초의 합의문을 도출, 녹색경제로의 이행 발판 마련
-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및 향후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논의기반 마련

② 구체적 행동계획 및 로드맵 미흡

- 녹색경제의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설정, 녹색경제 로드맵 등 구체적 행동계획 미흡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결정을 유엔총회로 연기하였다는 아쉬움

4) Rio+20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반기문 사무총장, UNGA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 마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정표로서 Rio+20 결과문서(6.28, 반기문사무총장 브리핑)
 - 추후 SDGs 설정 등 후속논의의 중요성 강조 및 적극적 지원 의사 표명
 - Rio+20 결과문서라는 기반과 이를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의 700여개에 달하는 자발적 공약과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달성 추진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 : "A Good Step Forward"

- 경제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속에서 회원국들이 어렵게 합의를 도출, 향후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EU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약과 의지의 강화 필요

- 결과문서에서 녹색경제를 인정, 추후 논의의 강한 기반을 마련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
- 공약의 수준(level of ambition)이나 내용적 구체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

시민사회, 언론 : 내실있는 결과문서로서 도출에 실패에 대한 실망감

- 실질적 이행수단과 정치적 합의에 대한 결정을 후속과정에 일임한 것에 대한 비판
-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금융 등 복합위기 속에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대한 실망

“리우+20이 성공적이었음이 분명하다.

리우에서 우리는 변화를 위한 부인할 수 없는 지구적 운동이 더욱 진화하는 것을 보았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

“리우+20 결과문에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 세계 정상들은
지우개로 만든 도장을 찍으며 기존 관행을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하려 할 뿐이다”

Rio+20=Greenwash20

— 국제 NGO 사무총장(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



부록. Rio+20 참가 연수자 명단

No.	광역	기초	성명	소속	직책	코스	비고
1	부산 (4)		이진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부회장	2팀	
2			최 열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부회장	2팀	
3			문태영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위원	2팀	
4			주승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팀	
5	대구 (5)		김종석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회장	2팀	
6			윤귀분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부회장	2팀	
7			김미경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위원	2팀	
8			도주환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위원	2팀	
9			오용석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2팀	
10	인천 (4)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	2팀	
11			이세영	인천광역시 기초의제협의회	회장	2팀	
12			지영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그린스타트 사무국장	2팀	
13			박홍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2팀	
14	경기 제주 (9)	제주	김태성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상임의장	2팀	
15			김덕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2팀	
16			임병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간사	2팀	
17			최재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팀	
18		시흥	신상철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EM시민실천단	2팀	
19			서경옥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시흥갯골시민실천단 위원	2팀	
20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팀	
21		안산	신윤관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 협의회	도시계획교통분과 위원	1팀	
22		용인	정윤준	푸른환경세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팀	

No.	광역	기초	성명	소속	직책	코스	비고
23	강원 (3)		김영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2팀	
24			박준영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2팀	
25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팀	
26	충북 충남 (5)		오병용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2팀	
27			김병빈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2팀	
28			심진수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자연환경분과 위원	2팀	
29		천안	정선용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공동회장	2팀	
30			김우수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팀	
31	전북 광주 전남 (8)		최인규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상임대표	2팀	
32			양준화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2팀	
33			조미정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부장	2팀	
34			박명용	전라북도청	환경보전과	2팀	
35			오옥택	전라북도청	환경보전과	2팀	
36			박성범	전라북도청	환경보전과	2팀	
37			이종택	푸른광주21협의회	기획부장	2팀	
38		순천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2팀	
39			박연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1팀	
40	전국 (5)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IT학부 부교수	1팀	
41			장문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팀	
42			오소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팀	
43			김현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2팀	
44	여정진행		이대수	푸른경기 21	기후변화위원장		
45	현지여정진행		공홍식	HKB 대표			